

“광주 역사·정신 선물로… 전통·현대 하나된 화음”

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28일 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
이건용 작곡가 위촉곡 초연 등
성악·합창·무용 등 장르 협업



이건용 작곡가

“5·18민주화운동기념 오페라 ‘박하사탕’처럼, 그동안 고통과 치유, 어둠 속에서의 빛을 향한 몸부림이 제 작품들의 큰 줄기였습니다. ‘꽃’은 어둠의 반대, 즉 빛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44회 정기연주회를 올리기에 앞서 18일 오전 10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진행된 리허설에서 이진용 작곡가는 위촉곡 ‘꽃’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 작곡가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는 누구나 다 알아서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몇년 사이 그 시가 참 와닿았다. 꽃의 이름을 낭송하면서 읊을 엮었다.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해주고, 인정해주며, 온전한 우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모티브가 돼 작품을 썼다”고 설명했다.

위촉곡 ‘꽃’은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담긴 광주 정신의 생명력과 승고함을 꽃으로 형상화한다. 시의 문학적 요소를 미학적으로 접근했다.

작품에는 초롱꽃, 메밀꽃, 함박꽃 등 이 작곡가가 선별한 140여가지 꽃의 명칭이 등장한다. 특히 제비꽃은 흰제비꽃, 흰털제비꽃, 잔털제비꽃 등 16가지가 나온다. 여기에는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고유한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소중하게 바라본다는 의미가 담겼다.

작품은 박승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가 대하 시절 스승인 이진용 작곡가에 광주를 위한 곡을 제안하면서 만들어졌다. ARKO한국창작음악제 추진단장인 이 작곡가가 지난해 광주예술의전당이 공동 주최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랑제 특별 연주회’를 통해 시립국악관현악단의 기량을 이미 접한 상태에서 이같은 제안을 수락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이 작곡가는 “광주시민께 드리는 꽃다발 같은 무대”라며 “꽃이라는 시로 음악의 재미와 감동은 물론, 광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꽃’이라는 타이틀로 열릴 이번 정기연주회는 위촉 초연곡 ‘꽃’과 더불어 다채로운 곡들로 채워진다. 공연의 포문은 최성환 작곡·이석중 편곡의 관현악 협주곡 ‘아리랑 환상곡’이 연다. 1976년 북한에서 작곡돼 전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에서 자주 연주돼온 곡을 국악관현악으로 선사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원 10명이 함께해 국악과 서양 관현악 무대를 보여준다.

세계문화유산 종묘제례악을 모티브로 국악관현

악, 성악, 무용을 결합한 첼로협주곡 ‘희문’도 만날 수 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최승욱 단원과 김병오 악장, 국립국악원 출신 무용수 최성희·김진정·최형선·이정미 등이 종묘의 일부를 함께 선보여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무대를 만든다.

아울러 이경성 작곡가의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는 타악그룹 ‘판타지’와 김행덕이 함께 해 시원한 비가 쏟아진 뒤 더욱 선명해진 풍경을 설장구와 관현악으로 그린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 기념 위촉 초연곡 ‘불의춤’은 조선대 서영 교수의 안무로 무용수 양고은이 열정적인 춤사위를 펼친다.

또 남도 소리와 합창, 국악관현악이 결합된 판소리 ‘쑈대머리’는 지휘자 박승희 예술감독이 작곡 및 황호준 편곡한 곡으로, 국창 임방울 선생이 불러 큰 울림을 준 ‘쑈대머리’를 국악관현악, 합창, 성악이 어우러진 무대로 선보인다. 광주시립창극단 소리꾼 이서희를 비롯해 광주시립합창단 테너 우성식, 흥명식 그리고 바리톤 송승범, 윤찬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무대의 하이라이트인 ‘꽃’은 1980년 광주의 상처가 시간이 흐르면서 송고한 차원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음악으로 그린다. 광주시립합창단 전 단원이

참여하며 메조소프라노 김하늘, 마림바 연주자 김지향, 비브라폰 연주자 강나영이 무대에 선다.

공연의 사회와 시낭송은 배우 이원종이 맡는다. 포스터는 지난 6월 객원지휘자로 시립국악관현악단 무대에 오른 김라원(농성초 3)앙이 직접 그린 양귀비꽃 그림으로 꾸몄다.

박승희 지휘자는 “아리랑과 종묘제례악, 판소리 쑈대머리, 그리고 위촉 초연곡 ‘꽃’으로 정기연주회를 준비했다”며 “서양악기 첼로와 협연, 성악, 그리고 무용까지 선보이는 종합예술 무대로 예상 광주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연주회는 시, 성악, 서양악기, 종묘제례 일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종합적으로 선보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무대”라며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음악으로 다시 바라보고, 전통과 현대가 만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울림을 시민들께 들려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44회 정기연주회 ‘꽃’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6세 이상(2020년생 포함) 관람 가능하며, 예매는 티켓링크(1588-7890)에서 하면 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 일본서 ‘화합의 소리’ 선사

임방울국악진흥회, 12월 1~3일 가고시마현민센터
수교 60년 ‘제33회 대통령상’ 김정훈 명창 등 출연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이 한국의 전통예술을 알리는 국제 무대를 펼친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종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일본 가고시마현민교류센터에서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공연을 선보인다.

임방울국악진흥회는 ‘임방울국악제’ 세계화 및 수상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제고, 국악의 성지 예향 광주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국내와 공연을 지속해왔다.

이번 공연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친선문화 우호 증진을 물론, 동포와 교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문화수도 예향 광주의 예술혼을 널리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무대는 2일 오후 6시30분 가고시마현민교류센터에서 진행된다. 사카모토후미오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이사장과 현지 시민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 고요 전통국악 예술의 진수를

가 펼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무대는 올해 농악 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국패비단 농악단 정동찬 등 6명의 신명나 ‘풍물만’곳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제33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정훈 명창이 국창 임방울 선생의 애창곡 ‘쑈대머리’와 ‘심청가’ 중 ‘삼봉사 논노는 대목’을 열창한다.

기악 일반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유세운, 김철환, 한정민 명인이 전통국악의 활력소인 ‘기악산조’를, 제16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임재현 명창이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의 가야금 병창 선사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신술찬 등 9명은 무궁화꽃을 상징하고 민족의 대화합을 기원하는 화려한 ‘부채춤’을, 두미지·강재인·



김찬미



김정훈



김소진

이현지 수상자가 태평성대와 풍년을 기원하는 ‘태평무’를 각각 선보인다.

제13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찬미 명창과 명창부 최수상을 받은 김소진 명창은 ‘수궁가’ 중 ‘고고 천변 눈대목’ 입체창을 헌정한다. 대미를 장식할 무대는 신명나고 흥겨운 ‘남도민요’로 채워진다. 한국의 농악놀이에서 파생된 ‘소고춤’을 임지연 등 7명이 풍물판굿팀과 함께 박진감 넘치는 공연을 선보이고, 김찬미·김정훈·김소진·임재현 명창과 전 출연진이 ‘성주품이’와 ‘남한산성’, ‘진도아리랑’을 들려준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물질문명에 대한 시각적 재해석과 성찰

양호열 개인전 29일까지 광양 미담갤러리

현대도시문명으로 인한 물질만능주의 풍조에서 인간의 자화상으로 탐색하는 전시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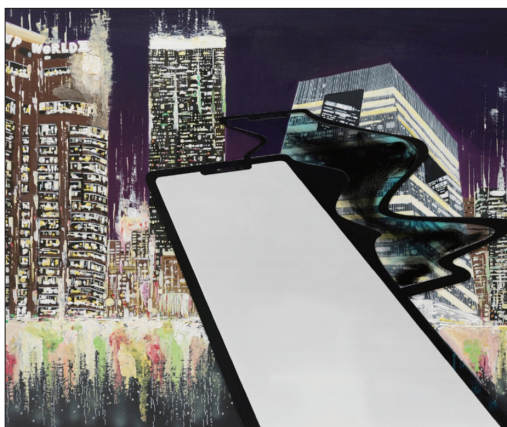
전남 광양 미담갤러리(대표 유순)는 양호열 작가의 여섯번째 개인전을 지난 10일 개막, 오는 29일까지 ‘거울의 도시’라는 타이틀로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출품작은 100호 2점 등 총 15점.

이번 전시는 작가가 바라본 물질문명에 대한 시각적 재해석과 성찰로 이해하면 된다. 작가는 고층건물의 경우 돈으로 창조된 이미지이자 권위와 탐욕을 상징한다.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문명까지 더해져 기계문명이 인간을 지배하는 동시에 인간은 스마트폰 액정에 보이는 나르

시즘의 시대에 빠져 삭막하게 변질된 세상을 응시한다.

특히 작가는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첨단 디지털문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인간의 소통을 단절하는 비대면 문화가 더 증폭되고 있는 등 인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는 현실의 풍경을 응시, 유토피아적 환상과 공존하는 세계에 대한 내밀한 탐색을 시도한다.

양호열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제5회 개인전과 베트남 하이퐁과 하롱베이, 서울, 대구 등 다수 국내



‘중독’

외 단체전에 출품했다. 광주미술대전 특선 4회를 비롯해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 부문 특선 및 대상을 수상했으며, 조선대 미술대학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 소암미술관 부관장을 맡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전당서
책 매개로 소통해볼까

21일 김애란 소설가 낭독공연
도서 원화전...22일 북콘서트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책을 매개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낭독공연과 북콘서트가 열린다.

먼저 ‘ACC 도서낭독공연: 칼자국’이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선보인다.

이번 낭독공연에서는 김애란 작가의 단편소설 ‘칼자국’을 뮤지컬 형식으로 재구성, 피아노와 바이올린, 퍼커션의 라이브 연주에 맞춰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로 소설 전체를 감상할 수 있다. 공연 후에는 김 작가가 관객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칼자국’은 딸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이십여 년간 국숫집을 하며 자신을 키운 어머니의 억척스럽고도 따뜻한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로, ‘제9회 이효석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김 작가는 소설집 ‘침이 고인다’와 ‘비행운’, ‘바깥은 여름’, 장편소설 ‘이중 하나’는 거짓말’, 산문집 ‘잊기 좋은 이름’ 등을 집필했다. 한국일보문학상과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신동엽장상, 김유정문학상, 프랑스 리나페르뤼상 등 국내외 주요 문학상을 수상했다.

책 속 원화를 접할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된다. 오는 30일까지 ACC 도서관 이벤트를 통해 열리는 도서원화전에서는 정수지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칼자국’ 책 속 원화전이 열린다.

이어 22일 오후 2시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북콘서트-자아탐색’이 진행된다.

ACC가 2025년 문학나눔 작가 지원사업으로 마련한 이번 북콘서트는 서운후 시인의 사회로 진은영 시인과 정다연 시인이 함께한다.

행사에서는 3명의 시인이 ‘느리게 빛나는 문장들’이라는 주제로 낭독과 대담을 통해 서로의 작품을 읽고, 독자들에게 문장이 주는 위로의 힘을 전한다. 진은영 시인의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정다연 시인의 ‘다정의 온도’, 사회를 맡은 서운후 시인의 ‘나쁘게 눈부시기’는 모두 2025 문학나눔 선정도서로 공연 당일 추첨을 통해 관객들에 증정될 예정이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책은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들으며 보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복합 콘텐츠”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할길 바란다”고 말했다.

낭독공연과 북콘서트 참가는 선착순 150명으로, 참가 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정채경 기자 view2018@